

2019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(제1차)

1. 회의 개요

- 일 시 : 2019. 1. 3.(화) 16:30 ~ 17:50
- 장 소 : 교수회관 3회의실
- 참 석 : 위원 9명 중 6명 참석
 - 참석위원
 - 외부위원 : 교회관 위원
 - 학교대표 : 학생처장, 기획처장
 - 학생대표 : 도정근 제61대 총학생회장, 김민석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위원장, 홍지수 대학원 총학생회 사무총장

2. 회의 내용

- 안건 설명
 - 2019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자료
- 회의 내용
 - 위원 소개 및 인사
 - 회의 개최 시기 관련
 - 학생대표 : 외부위원 두 분이 불참하셨고, 두 분 다 1차 회의 개최에 대해 사전에 연락받지 못함.
 - 학교대표 : 준비기간이 짧아서 되풀이되는 문제이고 학교가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님. 학교 측에서는 10월에 학생 측과 논의를 했고, 12월부터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위원 추천, 자료 요청이 예년보다 지연되면서 급하게 일정을 잡던 중 학생 측, 학교 측 추천위원이신 외부위원 두 분께서 모두 해외 일정이 있는 날로 1차 회의 일정을 잡게 됨. 양쪽 다 선제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. 위원님들

일정 관련해서는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○ 위원장 선출 관련

- 간 사 : 작년에 협의추천위원이신 교회관 위원이 위원장, 학교 측 추천위원이신 오영상 위원이 부위원장을 맡아주심. 위원장, 부위원장 임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어 위원장,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
- 외부위원 :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외부위원들이 모두 계신 2차 회의 때 정했으면 함.
- 학교대표 : 공식적인 1차 회의이니 위원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. 매년 위원이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 일부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작년 위원장께서 계속 해주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함.
- 학생대표 : 외부위원 두 분이 안 계시는 가운데 확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교회관 위원께서 1차 회의는 임시로 위원장을 하시고, 2차 회의 때 확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음.

<교회관 위원이 1차 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함>

○ 2018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 관련

- 간 사 : 회의자료 설명
- 학교대표 : 학부입학금을 폐지하면서 기대했던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었음. 작년에는 등록금을 동결하면 국가장학금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였으나, 한국장학재단에서 작년에 국가장학금 배정 방법을 바꾼 것이 서울대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장학금 규모도 많이 줄었음을 참고해주기 바람.

○ 자료요구 관련

- 학생대표 : 회의자료 중 언급된 2019년도 요구액, 조정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함. 또 발전기금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시된 자료 외에는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발전기금 고유목적사업비 세입세출자료, 발전기금 수익사업 세입세출자료를 다시 요청드림.
- 학교대표 : 발전기금은 학교와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학교가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, 자료 제출을 검토하도록 하겠음.
- 외부위원 : 발전기금과 학교의 관계에 대해 향후 학생 측에 설명할 필요가 있음.
- 학생대표 : 추가로 평균등록금, 학생 1인당 교육비, 등록금 의존율을 대학원 기준으로 뽑은 자료도 요구함.

○ 2018년도 논의사항 관련

- 외부위원 : 작년에 합의했던 사항은 단과대학별 등록금 관련 TF팀을 꾸리는 것과 대학원 입학금을 유지하는 대신에 대학원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고 했던 두 가지임. 이에 대한 진행상황이 궁금함.
- 학생대표 : 등록금 TF 관련해서는 1년 동안 진전이 없었음.
- 간 사 : 작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봤을 때 등록금 TF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고 사전간담회부터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기억함. 학생 측에서 요구한 자료는 드렸고 10월 간담회 시 학생 측에서 차등등록금 산정근거 도출이 어렵다면서 필요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거론한 바 있었음.
- 학생대표 : 1년 동안 했어도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임. 그러나 일부 단과대학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을 더 내는데 추가로 실습비를 내야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지원을 논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것임.

- 학교대표 : 양측 다 결국은 교육원가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. 여러 이해관계가 걸려있고, 교육 원가를 반영하면 등록금을 올려야하는 곳도 생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고 중장기 프로젝트로 가야 할 것임.
- 외부위원 : 그럼 대학원 쪽 진행상황은 어떤지?
- 학생대표 : 대학원 측에서 네 가지 제안을 드렸으나 진행되지 않고 있음.
- 학교대표 :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자 했는데 학생 측에서 제안한 사업 내용에 대해 합의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음. 다음 회의까지 학생대표와 만나서 논의하겠음. 학생 복지 관련해서는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성의있게 대응했다고 생각함.

○ 향후 일정 관련

- 학생대표 : 2차 회의는 8일로 하고, 그날 협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추가로 미리 10일 전후로 일정을 잡는 것이 필요해보임.
- 학교대표 : 학교 대내외적 사정 상 당연직 위원의 임기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고, 가능하면 처음에 시작한 위원들이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음.
- 외부위원 : 그러면 1월 10일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8일 회의 때 가능한 한 협의하도록 함.

3. 결정 사항

□ 차기 회의 개최 : 2019년 1월 8일(화) 15:00

<폐회 : 17:50>

2019. 1. 3.